

美 소비자물가 4.2% ↑
13년 만에 최대폭 ▶A13면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 ▶A15면
“그린에너지에 미래 걸었다”



SAMSUNG
Galaxy S21 | S21+ | S21 Ultra

Market Index	(12월)	4판
코스피지수	3161.66	↓ -47.77
코스닥지수	967.10	↓ -11.51
국고채금리 (3년물, 연%)	1.121	↓ -0.007
환율 (원·달러)	1124.70	↑ +5.10
원전(100원당)	1033.59	
원유료	1364.20	
일본 닛케이	28,147.51(-461.08)	
WTI(유가)	65.28달러(+0.36)	

NH투자증권 투자, 문화가 되다

한국경제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hankyung.com

제18076호 | 대표전화 02) 360-4114

대만 TSMC 쇼크 아시아 증시 휘청

TSMC 4월 매출 예상 밖 부진
대만지수 장중 8.55%까지 추락
코스피 1.49%·닛케이 1.61% 하락



대만 증시가 휘청이자 코스피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 ▶관련기사 A2면

12일 코스피지수는 1.49% 하락한 3161.66에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10일 이후 이를 세 9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개인들이 나흘로 3조원어치 순매수하며 증시를 떠받쳤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를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은 이틀간 4조7000억원가량을 팔아치웠다.

대만 증시가 급락한 것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대만 경제를 이끄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의 지난달 실적에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며 증시에 충격을 줬다. TSMC의 4월 매출은 전월보다 13.8% 감소했다. 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악재였다. 대만 자위안지수는 이날 장

중 한때 8.55% 폭락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사상 최대 낙폭이다. 이후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4.11% 줄이며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는 1.61% 떨어지는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줄줄이 하락했다.

전날 미국에서 경기민감주가 부진했던 것도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다우지수는 1.36% 하락한 채 마감했다.

정택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회복 기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숨바꼭질하는 국면”이라며 “올여름까지는 변동성이 높고 상승 기류는 원만한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원/박의명 기자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 1조

(2019~2020년)

작년 적발 333건 - 3년세 5배 ↑
유사 수신·다단계 사기 가장 많아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 건수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은 9842억원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에선 지난해 기준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등이 218건(6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월 10% 이상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액을 변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손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대신 사주겠다고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의 기타 구매대행 사기가 84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암호화폐를’ 인정은 못해도 세금은 걷겠다”는 자기당착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8면에 계속 이인혁/박진우/양길성 기자

“100조弗 ESG 투자 기회 열린다”

ASK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가치투자의 대가 하워드 맥스 “인플레이션 대비를”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큰손들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맥스 회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부인에도 인플레이션 단면역이 형성되고 소비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후원으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A4, 5면

분야를 찾아 투자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자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내털리 아도메 브룩필드애셋매니지먼트 매니징디렉터는 “세계 임팩트 투자 시장에서 2050년까지 100조달러(약 12경3600조원) 이상의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왔다. 스티브 오부크 스킵터캐피탈매니지먼트 대표는 “비전통적인 부동산 자산은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꺼리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내 ‘큰손’들의 투자 속도와 분야도 한층 유연해졌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실사에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독 펀드와 공동 투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유연하고 신속한 조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철 현대해상화재 자산운용2본부장은 “벤처기업과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글 틈새시장 주목하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아시아 최대 대체투자 행사인 ASK 2021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가 1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하워드 맥스 오트리카피탈 회장이 화상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서 투자 기회와 시장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중부세 대상 100만명 시대... 중산층에도 ‘징벌적 과세’

올 부과대상 47%가 1주택자

‘상위 1%의 세금’으로 불리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매년 증가해 내년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중부세 대상이 12년째 그대로여서, 중부세가 이제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징벌적 세금’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A10면

유경준 국민의원 국회의원은 올해 중부세 주택분 납부 대상자가 87만1497명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중부세 납부 대상자(66만7000명)와 비교하면 30.6% 증가할 것이라던 유 의원의 추정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고 발표한 것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중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

100만 명은 주택 보유자 1433만6000명(2019년 기준) 중 6.9%에 해당한다. 작년 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4306만5617명) 대비로는 2.3%이며, 전체 인구(5182만9023명)와 비교해도 1.9%에 이른다.

중부세는 다주택자만의 세금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올해 중부세

납부 대상 중 47.2%에 해당하는 41만1000명은 1주택자이며 1주택자 중 3.2%가 중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부세 인상이 세입자의 인자로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까지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진규/좌동욱 기자

부동산 ▶A27면
집값노미 ▶B1-8면
폭락안소비 ▶C1-8면

BIZ INSIGHT ▶D1-4면
구독·배달 1577-5454

나의 위치를 높이다
미래 가치를 올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동국대학교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로 거듭나세요.

동국대학교 2021 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모집요강

정부지원 지식재산학과 석사과정 신입생모집 (야간 및 주말수업)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지식재산학과는 글로벌 지식재산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장학금(등록금의 최대 50%까지)을 지원합니다.

전형일정

- (온라인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1. 05. 10.(화) ~ 2021. 05. 18.(화) 24:00까지
- (원서접수) •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인 가능함(www.uwayapply.com)
- (서류제출) • 서류제출: 2021. 05. 10.(화) ~ 2021. 05. 20.(목) 17:00까지
- (접수처) • 서울캠퍼스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면접(구술)심사) • 2021. 06. 05.(토)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1. 06. 18.(화) 17:00 예정
-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 2021. 7. 1(목) ~ 7. 2(금) 예정
- (기타 문의사항) • 지식재산학과 학과사무실 Tel: 02-2290-1460~1
- e-mail: dg_u_mip@dongguk.edu

전형진행도

원서접수 (온라인) → 전형료납부 → 서류제출 → 면접 (구술심사) → 합격자발표 → 등록금 납부